

함께 웃고 울고... "탈춤 추며 삶 배웠죠"

중산간 외곽 순환도로 확장 속도

당신의 삶이
이야기입니다

(18)탈춤 있는 고병도·홍진철씨

"이상하게 탈을 쓰면 내면에 있는 다른 걸 보여주게 돼요." 방금 전까지 탈을 쓰고 한바탕 놀던 홍진철(46·제주시 구좌읍) 씨가 말했다. 탈을 벗자마자 익살스러운 몸짓과 말투가 온데간데 없어지니 한 몸에서 다른 사람이 느껴졌다. "굉장히 소극적인 성격"이라는 진철 씨는 "탈을 안 쓰면 아무것도 못 한다"고 우스개처럼 말했다.

진철 씨와 고병도(47·봉개동) 씨, 이 둘의 삶에 탈춤이 들어온 지는 일주 30년이다. 스무 살에 대학에 들어가 우연찮게 탈춤을 배웠고, 공연을 했고, 인연을 이어갔다. 제주대학교 동아리 '탈춤연구회' 활동을 했던 병도 씨는 "동아리방을 기웃기웃하다 잡혀 들어간 계관계의 시작"이라고 웃었다.

진철 씨의 시작도 비슷하다. 옛 제주산업정보대학 동아리 '우리문화연구회'를 통해 탈춤을 알게 됐다. 또래가 신나게 캠퍼스를 누비던 때에 "정말 어렵고 힘들게 배웠다"고 했다. 그는 "주로 봉산탈춤을 익혔는데 수업이 끝나면 주차장, 강당 등에 모여 '앉아 뛰여'를 반복하면서 허벅지에 알통이 벨 정도로 연습했다"고 말했다.

▶다시 깨어난 입춘굿 탈놀이= 시간이 쌓이자 탈춤은 "소중한 재능이 됐다". 두 사람은 물론 두 대학 탈춤 동아리 출신이 2000년대 초반, 탈춤을 잇는 단체 '제주두루나눔'을 만든 이유이기도 하다. 시기적으로 분명한 계기도 있었다. 탐라시대부터 행해졌던 '입춘굿' 복원이 물살을 타면서 탈놀이까지



지난 23일 제주시 삼도2동 '제주두루나눔' 연습실에서 홍진철(사진 왼쪽), 고병도 씨가 탈을 들고 한하고 웃고 있다. 이들은 약 30년 전에 배운 '탈춤'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다.

대학 동아리 활동으로 탈춤에 눈뜬 후 '제주두루나눔'으로 모여 전통문화 계승 나서
입춘굿 탈놀이 복원 후 매년 입춘 공연하며 소통과 다양한 삶 배워

되살리는 움직임이 일었던 터였다. 당시의 과정을 전해 들었다는 병도 씨는 "1998년부터 준비를 시작해 1999년에 첫 공연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일제강점기에 사라졌던 입춘굿이 부활한 첫해였다.

"제주에는 입춘 날에 모든 심방들이 모여서 굿을 하고, 탈을 쓰고 놀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육지부 탈춤처럼 명확하게 대본집이 남아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사진 속 탈춤을 봤을 때 육지의 그것과 비슷하거나 다른 점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하나씩 찾고 여기저기 이야기를 들으며 '제주도' 적인 것을 많이 담으

려 했다고 합니다."(병도)
옛 기록을 바탕으로 새로 태어난 '입춘굿 탈놀이'는 거의 매해 제주 두루나눔을 통해 관객을 만나왔다. 여신이 많은 제주를 상징하듯 오방각시 마당으로 시작하는 탈놀이는 발을 갈고 씨를 뿌리는 장면 등으로 이어지며 한 해의 풍요를 빈다. 사진 속에 박제됐던 제주문화의 호흡을 되살렸다는 것은 이들에게도 의미가 깊다. 진철 씨는 "한류의 밑바탕도 전통문화의 창조적인 계승"이라며 "굉장히 확실적인 삶을 살게 되는 AI(인공지능) 시대에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전통문화의 계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탈춤, '사람'이 남다= 탈춤은 약사의 연주, 배우의 연기로 짜이지만 완성의 '관객'이다. 함께 웃고 우는 존재이자, 관객이 나고 들면서 이야기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도 한다. 병도 씨가 말하는 탈춤의 매력도 다르지 않다.

"탈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많습니다. 풍물이나 판굿은 정해진 가락과 순서대로 진행을

하지만 탈춤은 연기하는 배우가 관객을 데리고 나와서 함께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준비한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관객과 관계가 이뤄지는 부분이 더 많은 셈입니다."

결국에는 '사람'인 듯했다. 이들이 탈춤을 계속하며 얻은 것 역시 '사람'이었다. 진철 씨는 "탈춤을 추며 많은 사람과 만나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빠르게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병도 씨는 탈춤을 '좋은 사람을 만나는 창구'라고 했다. 20년 넘게 탈춤을 함께해 온 두 사람의 입에서 짜 맞춘 듯한 대답이 나왔다. "스무 살 때부터 탈춤을 추면서 만난 사람들과 지금까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공연을 하고 탈춤과 연관된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데, 모두가 좋은 어른들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나이를 먹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보다 자세한 내용과 인터뷰 영상은 한리일보 홈페이지(www.ihalla.com)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봉개-와산-귀덕-상가 구간 예비타당성 사업대상 선정 상태 파괴 저감 노력해야

제주자치도 중산간 외곽 순환도로 확장 사업이 지난달 1차 관문을 통과했다.

31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의 동·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외곽 순환도로 확장 사업이 지난달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심사에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오는 2031년까지 사업비 2692억원을 투자해 공항과 항만, 주요 관광지 등 4대 성장 거점을 연결하는 중산간 도로를 확장(2차선→4차선)하는 사업으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18개 핵심 사업에 포함돼 있다. 사업 대상은 제주도 봉개-와산 구간, 귀덕-상가 구간, 서귀포에서 수산리 구간(제2공항 연결도로), 산록도로 입구-첨단과학기술단지 진입로 구간이다.

이 가운데 봉개-와산(1순위)·귀덕-상가 구간(2순위)이 지난달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심사에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올해 자체적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도는 기재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기본 및 실시시설개 용역과 행정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구간별 보상 협의와 공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구간도 2031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중산간 외곽 순환도로 확장으로 생태계와 경관 파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피해 저감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는 '도로법'에 따라 국·도도는 국비 지원 대상이나 대규모 사업(500억원 이상)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강소권' 발전 계획에 반영해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대상 사업 선정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했으나 반영이 이뤄지지 않았다. 강소권 발전 전략 사업 선정지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또는 신속 지원이 이뤄지고 국·도 조율도 향상(50%→60%)된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외곽 순환도로 구축 사업과 병행해 추진하는 제주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과 연계한 스마트 환승허브 구축 사업은 올해 9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개발공사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5년째 동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공사에서 공급 중인 공공임대주택 1389호에 대한 임대료를 5년 연속 동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최근 물가 상승과 내수 경기 악화 등 경기불황이 지속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가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이번 임대료 동결을 통해 가구당 연간 최대 약 120만원가량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개발공사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매입임대주택 1316호를 공급하고 있으며,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60~80% 수준으로 73호를 공급하고 있다. 김도영기자

해빙기 교통사고 유발하는 '포트홀' 위험천만...4면

제주몸국은 간편 포장식품으로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제주몸국

아주 특별한 날에만 먹었던 귀한 음식, 몸국! 이제 아무 때라도 마음대로 드실 수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1인가구 혼밥족

맛별이 딩크족

현장 용역 일꾼

제주몸국은 즉석식품이라 간편히 요리할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조리

냄비 가열 조리

중탕 조리

판매처 온라인) 마켓컬리, 쿠팡 오프라인)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제스코마트

문의처 신한에코 | 제주시 죽성서길 7-10 | **064-725-1100**